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통령상'

공영주차장 17개소 무료 개방

행안부 정책 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다양한 정책 추진·기반시설 지속 확충 등 높이 평가

전주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으뜸 도시로 인정을 받았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0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정책 평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기업, 교육 기관 등에 시상하는 것으로, 시는 지난 2017년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데 이어 3년 만에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자전거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자전거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목표로 자전거 도로 인프라를 정비하고 민간협력 자문기구인 '자전거 다올마당'을 운영하면서 ▲자전거 보험 가입 ▲자전거 대행진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시범학

교·동호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지난 2017년 이후 기린대로 등 2개 노선에 자전거전용도로 11.3km를 확충했으며, 장승배기로 등 10개 노선 10km 구간의 노후 자전거도로를 포장해 노면을 개선하고 진출입로도 개선했다.

2018년부터는 매년 전주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800여 명에게 9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115회 운영해 3,722대의 자전거를 수리하고 헬멧 등 안전용품도 지원하기도 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요즘 비대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자전거도시, 전주로 나아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지역상가 활성화 위해 3월 31일까지 최대 1시간

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상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5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영주차장 17개소를 최대 1시간까지 무료로 개방한다고 4일 밝혔다. 차량 2,151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규모다.

무료 개방되는 공영주차장은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오거리 ▲덕진광장 ▲건산천 제1·2 ▲삼천2동 ▲중화산2동 ▲서신동 ▲노송천 ▲신시가지 공영주차장(도청, 시터병원, 농업, KB, 흥산, 비보이) ▲만성지구 공영주차장(오케이타워 앞) 등이다.

이를 통해 상가를 찾는 방문객들에

게 주차장 이용 할인권을 제공해왔던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용객들의 방문이 늘어나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3~5월 공영주차장 20곳(3558면)을 무료 개방해 총 44만1,345대에 6억5,793만6,000원의 주차비를 감면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조금이나마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되길 기대한다"면서 "이용자들이 불법 주차장을 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을 적극 이용하도록 홍보하는 데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보건소, 고위험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전수검사

최근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전주시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3번째 전수검사를 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진선)는 오는 8일까지 고위험군 시설 162곳의 종사자 6,365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인주간보호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안전을 지키고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전수검사 방식은 병원 등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검체를 채취해 진행되며, 주기보호센터 종사자의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검사를 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과 12월 2차례 실시된 전수검사 결과, 총 1,041개소 2만1,776명 전원이 음성으로 나온 바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확진자들의 동선이 다수 발생한 평화동 지역에 5일부터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평화동 지역 내 숨어 있는 무증상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내 추가 확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김진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위험도를 다각도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증상이 있으면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덕진 선별진료소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화산 선별진료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김윤상 기자



신년 군경묘지 참배에 나선 김승수 전주시장 김승수 전주시장이 4일 오전, 2021년 새해를 맞아 전주시 승안산에 있는 전주군경묘지를 찾아 신년 군경묘지를 참배했다.

전주시, 온두레공동체 예비학교 참여자 모집

전주시와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지원센터는 '2021년 전수형 온두레공동체 육성사업' 추진을 앞두고 공동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예비학교에 참여할 회원을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온두레공동체는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도모하는 공동체로, ▲디딤단계(1년차) ▲이음단계(2년차) ▲희망단계(3년차) ▲아파트공동체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공동체 예비학교는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공동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로 이뤄진다. 시는 ▲사업의 방향과 적절성 ▲사업 세부계획 ▲사업예산 등 디딤단계 온두레공동체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이음단계와 희망단계에 참여하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공동체 심화 컨설팅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체 예비학교 참여를 원하는 공동체 대표와 회원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지원센터(완산구 동왕로3길 29)로 방문하거나 이메일(jub9301@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9319)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활동을 펼칠 온두레공동체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원룸·다가구주택 거주민 편의↑

전주시, 우편물 분실 사고 예방·응급상황 신속 대응 위해 12월까지 600여 개에 동·층·호 등 상세주소 직권 부여

전주시가 원룸과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600여 개의 원룸과 다가구주택에 동·층·호를 구체적으로 표기한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원룸과 다가구주택의 주소지 기재 미흡으로 인한 우편물 분실 사고를 예방하고, 화재사고와 응급환자 발생 등의 응급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해당 원룸과 다가구주택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뒤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을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방침이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소유주와

임차인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공적 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522개의 원룸과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 바 있다.

배회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해져 우편물이나 택배 등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한 위치 찾기가 가능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룸과 다가구주택 거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